



알렉산드르 김 교수 초청강연회:

“Thief in Law”의 발생 원인, 범죄조직상의 위계, 활동상의 특수성

지난 2019년 5월 8일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러시아센터는 알렉산드르 알렉세예비치 김 교수(블라디보스톡 국립경제서비스대학, 법학연구소)를 모시고 <“Thief in Law”의 발생 원인, 범죄조직상의 위계, 활동상의 특수성(‘Вор в законе’: причины появления, положение в криминальной иерархии, специфика деятельности)>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소련과 러시아에서 범죄조직 지도자들은 ‘thief in law’(‘자체 법 체계를 지닌 도둑’ 썸으로 번역 가능)라고 칭해졌는데, 이 용어는 사법당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들에 대한 정보는 공식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며, 구술자료나 기사 및 사법당국이 보유한 비공식 기록들에만 남아 있다. 강연자는 ‘도둑들’의 특성과 발생에 대해 밝히고, 소련과 러시아의 범죄조직에서 그들의 위치를 규정하며, 이들을 소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 ‘도둑들’ 이전에 소련에서는 범죄조직 지도자를 ‘이반’이라 칭했다. ‘이반들’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동하며, 잔혹한 살인은 물론, 마약 생산과 유통 등 이익이 되는 여러 범죄에 가담했다. 볼셰비키들은 이들에 중립적 태도를 취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범죄조직과 연루된 혁명가들이 존재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두 조직 모두 짜르 체제에 반대한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비에트 시기 정부는 ‘이반들’과 타협점을 찾아 이들을 통제하려 했으나, 범죄에 대한 대응 경험이 부족했기에 ‘이반들’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키는 결과만 야기했다. 결국 정부는 조직범죄를 강력히 탄압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러한 움직임에 선봉에 선 사람은 펠릭스 제르진스키였다. 반소련 폭도들을 진압한 경험이 있었던 제르진스키는 비밀경찰을 결성해 범죄조직들을 진압했다. 비밀경찰은 조직범죄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여, 살인, 마약 거래, 무기소지가 적발되면 재판 없이 즉결처분했으며, 가족을 인질로 잡아 ‘이반들’에게 자수를 종용했다.

비밀경찰의 진압이 성공하면서 ‘이반들’은 대부분 목숨을 잃었고 범죄조직은 음성화되었다. ‘이반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생존전략을 모색했고, 당시 경찰은 절도행위에 대해서는 가볍게 처벌했기에 도둑이 되기로 했다. 이들은 무기사용, 마약유통, 살인을 금하고, 인질로 협박당하지 않기 위해 가정을 꾸리지 않는다는 규칙을 세웠다. 국가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징표로 노동도 하지 않았으며, 사법당국과의 협력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한편 ‘도둑’의 지위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합당한 죄목으로 인한 투옥, 다른 도둑의 추천이 요구되었다. 도둑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 또한 엄격한 회의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1940년대에 이르러 ‘이반’은





대부분 '도둑'으로 전환되었다.

경찰들은 이들을 일반 도둑과 구분하기 위해 “Вор в законе(자체 법체계를 지키는 도둑들)”이라 불렀다. 제르진스키는 조직범죄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론에 주목했다. '이반'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의 사상이나 가혹한 심문과정은 경찰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켰던 것이다. 한편 '도둑'은 직접 살인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민중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제르진스키는 간파했다. 이에 제르진스키는 경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보육원 후원활동 등을 통해 불우한 아동 돕기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이후 후원활동이 중단되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범죄조직으로 유입되었다.

새로운 '도둑들'은 다양한 민족과 인종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들만의 은어를 발달시켰다. 또한 이들에게는 문신이 중요한 의미를 지녀 문신은 한 사람의 삶과 소속을 나타냈다. 이들은 수용소 환경에도 잘 적응하여 일반수감자들에게 노동을 떠넘겼는데 정부는 이를 묵인했다. 수감된 농민들이나 지식인들은 '도둑들'에게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도둑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수용소 내에서의 경제 사정 악화로 배급이 줄어들었으며 가족들로부터 지원도 끊겼다. 이에 '도둑들'은 일반 수감자들로부터 식량을 빼앗았고 일반 수감자의 사망률이 증가했다.

흐루시초프가 실각된 이후 브레즈네프 시대에는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범죄자들에게겐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 정부의 부패도 심화되어 공무원이 매수되었고 '도둑들'은 폭력을 사용하여 금품을 갈취했다. '도둑들'은 청소년에게도 관심을 가져 이들을 조직원에 유입시켰다.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는 수용소 생활에 대해 동경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70년대 말 KGB는 '도둑들'을 위해한 현상이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강력 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조직범죄가 정부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소탕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소위 '백조' 수용소를 만들어 '도둑들'을 수감하여 범죄에서 발을 빼도록 교화시켰고, 결국 '도둑'의 지위를 버리는 자들이 점차 증가했다.

페레스트로이카와 소련 붕괴 이후 범죄조직도 변화했다. 단일조직을 유지했던 '도둑들'이 분열했고, 그들 내부에서 민족 갈등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슬라브계와 카프카스계로 분리되었고, 슬라브계 내부도 분열되었다. 현재는 카프카스계가 슬라브계보다 우세한 상황이다. 카프카스계는 '도둑'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변경했다. 수감 경험이 없어도 '도둑'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카프카스계를 슬라브계는 '오렌지족'이라 비웃었다.

'도둑들'은 해외에 진출하기도 했다. 2000년대 미국에서는 '아르메니아의 힘'라는 이름의 러시아 '도둑들'이 있었다. 현재 러시아 '도둑들'은 이탈리아 마피아들과도 손잡고 있고, 심지어 한국에도 존재하며 연해주와 한국에서 밀수에 관여하고 있다.

본 강연이 끝나고 질문 및 답변 시간을 가졌다. **박중소 교수 (서울대 노어노문학과)**는 60년대에 젊은이들 사이에 범죄와 수감 생활이 동경의 대상이 된 사회적 원인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대해 강연자는 소련에서 당에 대항하는 행위는 자유를 추구





러시아연구소·러시아센터

Institute for Russian, East European & Eurasian Studies

РУССКИЙ ЦЕНТР ФОНДА РУССКИЙ МИР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수강생활은 자유 추구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답변했다.

신광선 교수(서울대 재료공학과)는 한국에서의 ‘도둑’의 개념과 강연 주제인 ‘도둑’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Thief in Law’ 개념이 소위 ‘마피아’ 개념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질문하였고, 이에 알렉산드르 김 교수는 ‘Thief in Law’라는 용어는 러시아의 사법 당국에서 ‘범죄조직의 대장, 즉 마피아의 우두머리’를 지칭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현재 ‘Thief in Law’의 지위는 약화되어 모든 러시아 마피아 조직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는 없으며, 러시아의 마피아들도 여러 범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라고 부연설명하며 강연을 마쳤다.

